

환경산업 낙후성 “개선불가?”

환경기술 선진국의 30-60% 수준 ... 시장규모도 10조원 이하

21세기에는 환경산업이 성장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이나 투자규모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환경산업은 시장규모가 영세해 기술개발(R&D) 투자나 업종별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9년말 기준 환경오염방지시설 관련기업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296개, 5억-10억원이 78개, 2억-5억원이 525개로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국내 환경기술은 대부분 선진국의 30-6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생태계 복원, 환경보건, 해양환경, 청정기술 등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의 대표적 환경산업으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폐기물처리업,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등이 있는데, 시장규모는 1998년 기준 7조3000억원 수준이고 정부가 4조억원(55.5%), 관련기업이 2조9000억원(39.7%)을 투자하고 있다.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해 환경산업의 절반이 수질분야에 집중돼 있고 대기 및 폐기물 분야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향후 토양정화 관련산업, 환경서비스 부문의 시장이 큰폭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 이후에는 사후처리시설 위주의 수질, 대기, 폐기물 부문의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반면, 오염의 사전예방, 청정시설 부문이 국내 환경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래 환경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개발과 보급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환경산업의 육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적인 폐자원 수집처리사업을 통해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1%p 제고시 687억원의 외화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품목별 외화절감효과는 고철 573억원, 폐지 110억원, 금속캔 3억, PET 용기 1억원 순이다.

특히,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2000년 폐자원 가격이 1999년에 비해 최고 50.7%까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의 폐자원 수입비용이 1999년보다 32.7% 증가한 1조7000억원(141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 일부 품목의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1998년 24.9%에서 1999년 25.6%로 0.7%p 상승했다.

<화학저널 2001/4/9>